



화장품을 생각하다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 교육 교재

COSMETICS



화장품을 생각하다

CONTENTS

PART 1 화장의 시작은 세안

- 1. 피부는 우리 몸의 보호장벽 7
- 2. 나의 피부타입에 대해 바로 알자 8
- 3. 피부를 위한 세안의 비법 9
- 【Tip】 세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1

PART 2 화장품 들여다보기

- 1. 화장품이란 무엇일까? 15
- 2.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과정 16
- 3. 꼭 알아야 할 화장품의 주요 성분 17
- 4. 논란이 되는 화장품 성분 19
- 5. 안전한 화장품을 위한 위해평가 21
- 【Tip】 화장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22

PART 3 기능성 화장품은 마법의 약?

- 1. 늘어나는 기능성 화장품 25
- 2. 기능성 화장품은 마법의 약이 아니에요 26
- 3. 기능성 화장품 100% 활용법 27
- 4. 자외선 차단제 28
- 【Tip】 자외선 용어와 성분 정확하게 알기 29
- 5. 미백 제품 30
- 【Tip】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31
- 6. 주름개선제 31
- 【Tip】 좋은 화장품이란 과연? 32

PART 4 현명한 화장품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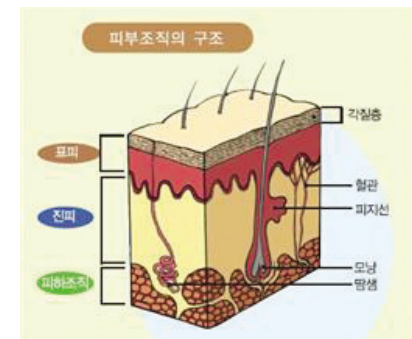
- 1. 올바른 화장품 선택-화장품 표시 확인으로부터 35
- 2. 전 성분 표시제 36
- 3. 광고에 현혹되지 말기 37
- 4. 올바른 화장품 사용 요령 39
- 5. 이상반응시 대처요령 40
- 6. 소비자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41
- 부록 44
- 청렴생활 7대 강령 46



PART 1
화장의 시작은 **세안**

1. 피부는 우리 몸의 보호장벽

- (1)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구분되며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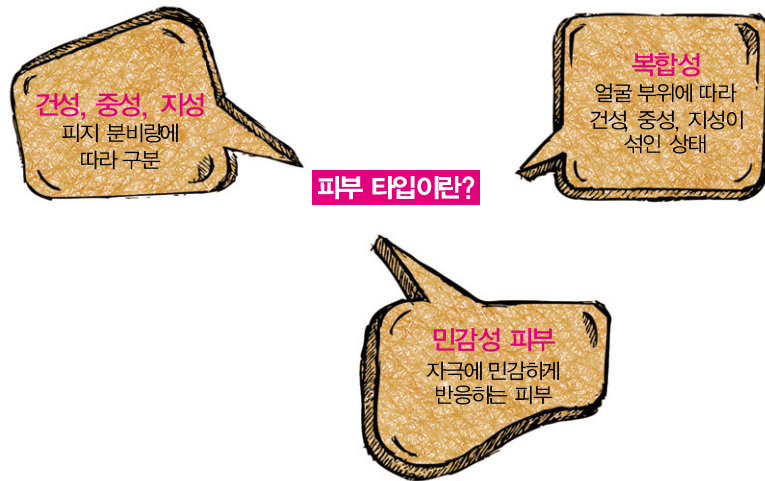
- (2) 피부는 화학물질, 세균, 바이러스,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은 피부의 보호장벽이 됩니다.

- (3) 화장품을 바르는 경우 화장품 성분이 피부를 통과하여 인체내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소량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피부표면에서 증발(Evaporation)되거나 각질층에서 흡수(Absorption)되고 일부 진피층에서 대사(Metabolism)가 이루어 집니다.



2. 나의 피부타입에 대해 바로 알아!

- (1) 피부는 자신의 피부타입을 알고 그에 맞게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타입은 일반적으로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 (2) 피부타입은 유전과 같은 내부요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기후, 습도, 날씨 오염정도와 같은 외부환경요인 및 노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변합니다. 또한 피부타입은 분류 자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 (3) 오늘 나의 피부 상태가 어떤 피부타입에 더 가까운지 알고 이를 고려하여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부를 위한 세안의 비법

- (1) 세안의 목적은 피부 자극을 적게 주면서 피부의 오염을 씻어 내는 것! 바람직한 세안법을 잘 실천하는 것으로도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① 세안 전 손 씻기

우리의 손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 더러움에 오염될 수 있으니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세안을 시작해요. 평상시에도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지 않는 것이 피부건강에 좋습니다.

② 미온수 이용하기

일반적으로 체온에 가까운 25~35℃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얼굴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물은 모공을 열어주어 노폐물이 분비되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③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 선택하기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게 세안제를 사용해야 효과적이고 피부 트러블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라면 비누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④ 세안제를 덜어 거품을 내기

세안제의 특정 성분은 거품 상태에서 순화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그대로 직접 피부에 닿게 하는 것보다 거품 상태가 피부에 주는 자극이 덜합니다.

⑤ 손가락을 이용해 거품을 얼굴에 발라 둥글게 작은 원을 그리며 닦기

거품으로 원을 그리면서 얼굴 전체를 골고루 '롤링' 하면 노폐물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얼굴 전체와 목 뒤, 귀 뒤까지 골고루 세안해 주세요.

⑥ 충분히 헹구기

세안제나 비누 성분이 피부에 남아 있지 않도록 최대한 깨끗하게 헹구기 합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로 뿔뿔이 씻어낼 때까지 헹구는 것은 세안 후 적당히 남아있어야 할 유분까지 제거하게 되므로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⑦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없애기

세안 후 마른 수건으로 문지르면서 닦는 것은 강한 마찰을 일으켜 피부를 상하게 합니다. 또한 세안을 하고 나서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톡톡 두드리면서 자연 건조되도록 하는데 이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의 수분마저도 날아가게 해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합니다. 마른 수건을 가볍게 대어 물기만 제거하거나 거즈 수건을 얼굴에 올려 자극없이 물기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비누를 쓰면 피부가 나빠진다?

➡ **아니오**

비누의 pH는 8~9로 알칼리성이며 피부의 pH는 5~6으로 약산성입니다. 비누로 세안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중성화 작용으로 건강한 일반 피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피부의 표피가 벗겨진 상태이거나 피부가 대단히 민감한 경우에는 유아용 바디클렌저 제품이나 워셔블 폼 클렌징이나 클렌징 로션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세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여드름 피부는 자주 세안하는 것이 좋다? ➡ **아니오**

여드름의 원인 중 하나는 피부 각질이나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것이므로 적절한 세안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세안을 너무 자주하면 피부를 과도하게 건조시켜 자극에 민감하게 하여 오히려 피부염이 잘 생기기 쉬운 상태를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도록 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3. 피부 건강을 위해 철저한 이중² 세안을 해라? ➡ **아니오**

폼클렌저,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밀크 등 클렌징 제품으로 색조화장을 지운 후 비누세안을 하는 것을 이중 세안이라고 합니다. 이중 세안은 진한 색조화장을 했거나 워터 프루프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거나 요리나 청소 등으로 피부의 오염이 심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전날 밤 세안을 하고 잠자고 일어나 아침이라면 이중세안이 필요없다는 것! 피부타입에 맞게 비누를 사용하거나 물로만 세안해도 충분합니다.



PART 2
화장품
들어다보기

1. 화장품이란 무엇일까?

“화장품법에서의 화장품 유형”

영·유아용 제품류 (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화장비누는 제외)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을 ‘화장품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는 사용부위, 사용목적 등에 따라  화장품을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화장품은 의약품과는 다릅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4) 화장품은 의약품과 비교하여 안전성은 높고 효과가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사용하여 단기간 뚜렷한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생각하다

C O S M E T I C S

2.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과정

(1)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화장품법이 제정되어 의약품과 화장품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화장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어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각 단계별로 주요 화장품 관련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화장품은 아무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3. 꼭 알아야 할 화장품의 주요 성분

(1) 화장품의 주요 성분은 부형제, 활성성분, 첨가제, 착향제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각 성분의 배합비율이나 배합방법, 사용원료가 달라집니다.

부형제	유탕액을 만드는 데 쓰는 부형제는 주로 물, 오일, 왁스, 유화제로 제품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활성성분	화장품에 특별한 효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각 제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보습작용을 하는 물질이나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첨가제	화장품의 화학반응이나 변질을 막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으로 보존제나 산화방지제 등을 말합니다.
착향제	화장품에서 좋은 향이 나도록 돕는 향료입니다.

(2)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초화장품의 성분을 크게 분류해 보면 9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화장품의 9대 원료라고 합니다.





보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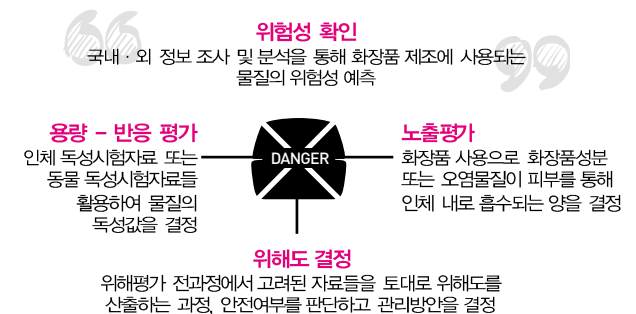
- 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

- (1) 보존제는 화장품의 유통과정 또는 사용과정에서 세균과 미생물이 화장품에 들어가 영양성분을 이용하여 증식, 변질시키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보존제를 쓰지 않으면 화장품이 미생물에 쉽게 오염이 되어 화장품의 사용기간이 짧아집니다.
- (2) 보존제로 쓰이는 파라벤(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과 페녹시에탄올은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 (3) 파라벤과 같은 보존제는 인체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함유사실을 밝혀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고 멸균조건에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무방부제' 제품이 있는데 이 경우 개봉과 동시에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안전한 화장품을 위한 위해평가

- (1) 화장품은 식품과 같이 직접적으로 몸에 들어가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호흡을 통해 흡수되므로 건강상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최근 화장품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반복적인 노출과 많은 사용으로 인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3)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가 '위해평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해평가 과정



위험성과 위해성

위험성(hazard)이란 물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독성을 의미하며, 위해성(risk)이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확률을 나타냅니다. (위험성×노출량=위해성)

기초화장품은
성분이 적은 것이
좋다? ➡ **아니오**

다양한 기능, 다양한 제형의 화장품이 수없이 개
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적은 것이 좋고, 많은 것이 나
쁘다고 단순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성이 걱정이라면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
은 기본적으로 인체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만을 사용하고 있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화장품에는 화학성분이 들어있으니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성분이 비슷하다면
가격에 상관하지 말라? ➡ **아니오**

전성분표시제법에 따라 성분표시는 대부분 함량순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형을
구성하는 성분이 먼저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 제형이 비슷한 제품은 성분이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화장품의 실제 효능을 보이는 성분은 뒤쪽에 배치되어 있고 이
같은 효능성분의 비율과 함유여부, 배합방식에 따라 제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성분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아니오**

대부분의 화장품은 상온 (10~25℃)에 보관하도록 개발되므로 지나치게 덥거나 추
지 않으면 제품이 변질되거나 변형되지는 않습니다. 한 여름 땀방울에 화장품을 방치
해 립스틱이 녹고 크림에 물이 생기거나 영하의 날씨에 제품이 굳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변형이나 변질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청량감을 느끼기 위해 화장품을 냉장고에 일단 넣었다면 이후 계속 냉장 보
관하는 것이 옳습니다. 잦은 온도 변화를 주면 화장품의 변질이 쉽게 올 수 있기 때
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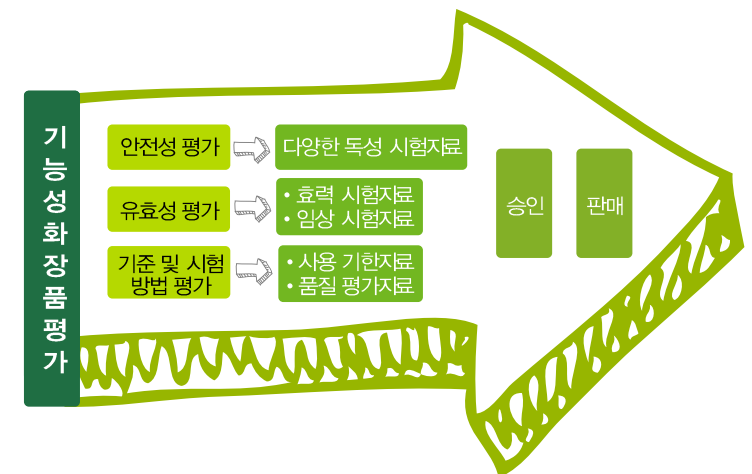
TIP 화장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PART 3 기능성 화장품은 마법의 약?

1. 늘어나는 기능성 화장품

(1)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 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화장품보다 특정한 기능을 강조한 제품입니다.

(2)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 이전에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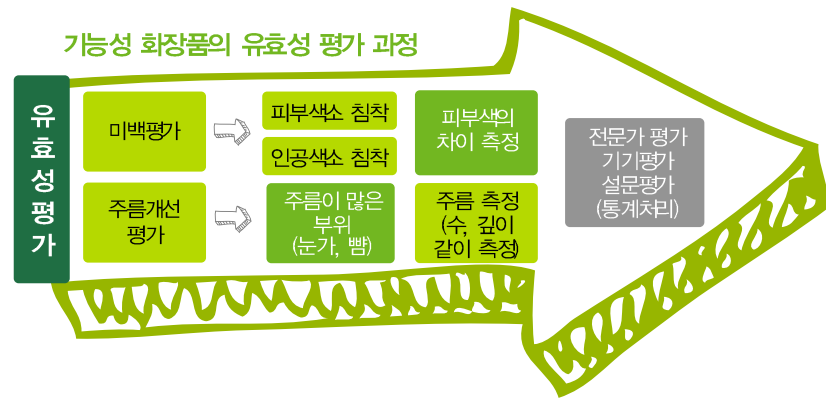


화장품을 생각하다

C O S M E T I C S

2. 기능성 화장품은 마법의 화장품이 아니에요

- (1)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에 생긴 어떤 문제를 조금 개선해 줄 수는 있지만 영구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또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2)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의약품과 같이 단기간에 뚜렷한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도 화장품이므로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기능성이 강조된 제품일수록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정확하고 올바른 사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 (3) 올바른 피부관리는 내 피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물을 마시고 하루 8시간 숙면과 운동으로 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몸에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하여 피부의 재생기능, 조절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기능성 화장품 100% 활용법

- (1)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적의 효능을 얻으려면 화장품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법을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쓰면 좋은 성분과 제품

- 여드름 전용 화장품과 세라마이드
- AHA & BHA와 보습제품
- 모공관리 제품과 퍼밍제품
- 비타민C와 비타민E
- 알부틴과 비타민C (낮에는 비타민C 밤에는 레티놀이나 AHA)
- 미백제품 사용 뒤에 보습제품 사용



함께 쓰면 안좋은 성분과 제품

- AHA(알파하이드록시산)&BHA(베타하이드록시산)와 레티놀
- 레티놀과 비타민C
- AHA와 비타민C
- 모공조절제품 & 여드름제품과 안티에이징제품
- 클라켄과 비타민C
- 퍼밍제품과 보습제품

- (2) 동일한 라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3) 피부타입이나 피부톤을 바꾸어 준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장품은 피부타입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쓰일 뿐이며, 피부타입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간혹 까만 피부를 희게 해주는 화장품이 판매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의약품인 피부표백제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의사와 상의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4) 기능성 제품을 쓸 때는 각각의 유효성분이 내 피부에 맞는지 함께 써도 좋은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유효성분이 여러 종류 들어있다고 무조건 효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자외선 차단제

(1) 자외선은 기미의 원인인데다 진피층까지 침투해 피부 탄력에 중요한 성분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외선 수치가 특히 높아지는 7월과 8월에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멜라닌 생성이 활발하지 않아 자외선에 더욱 민감한 아이들은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

- ① 외출 30분 전에 바른다. 피부에 스며들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 ② 너무 적은 양을 바르면 자외선 차단효과를 보기 어려우니 피부면적 1cm²당 2mg의 충분한 양을 골고루 펴 바른다.
- ③ 땀을 흘리거나 손수건 등으로 닦아 제품이 지워진다면 2~3시간 마다 덧발라 준다. 제품의 소실이 걱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외선 차단자수를 고려해 시간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3) 자외선 차단제품의 선택

- ① 일상생활용 ; SPF10 전후, PA+
- ② 실외에서의 간단한 스포츠, 레저용 ; SPF 10~30 전후, PA++
- ③ 해양스포츠, 스키용 ; SPF30 이상, PA++ ~ PA+++
- ④ 고지대, 적도 여행용, 자외선에 특별히 과민한 사람 ; SPF50+, PA+++

(4)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는 이중세안을 하여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가 후에는 바로 세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용어와 성분, 정확하게 알기

피에이 PA (Protection grade of UVA)

1. UVA는 긴파장의 저에너지 광선으로 유리를 통과하며, 피부의 진피 망상층까지 침투하여 표피에 있는 옅은 색의 멜라닌 색소를 진한 색의 멜라닌 색소로 변화시켜 피부를 검게합니다.
2. 짧은 파장의 UVB에 비하여 햇빛속의 존재량이 15배 더 많고 표피를 지나 진피까지 도달하므로 더 해롭습니다.
3. UVA 차단 효과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뉩니다. PA+(차단효과 있음), PA++ (차단효과 상당히 높음), PA+++ (차단효과 매우 높음)

에스피에프 SPF (Sun Protection Factor)

1. UVB는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광선으로 단시간에 표피와 진피 상부에 침투하여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림, 물집, 발진, 피부암을 일으키며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켜 피부에 색소 침착을 일으킵니다.
2. 장기간 자외선을 많이 받아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 피부 신진대사가 엉망이 되면서 멜라닌 색소가 세포 주기에 따라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남게 되는데 이것이 기미입니다.
3. UVB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가 SPF로 수치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큼니다. 국내에서는 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효능에 대해서는 +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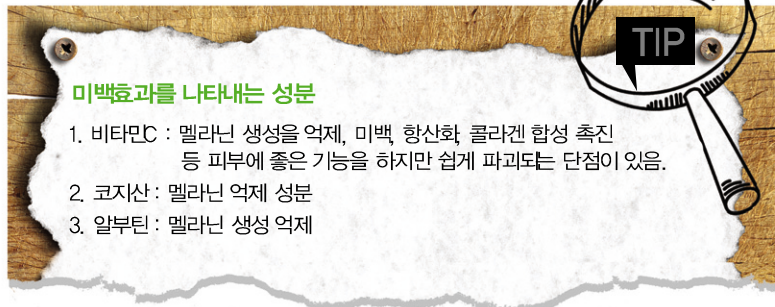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물리적 차단성분과 화학적 차단성분을 조합하여 사용하며, 어떤 비율로 배합했는지에 따라 제형, 자외선 차단지수 등이 결정됩니다.

1. 물리적 차단성분 : 무기질 원료 중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등으로 자외선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얼굴에 막을 씌우는 방식, 백탁현상이 있고 발랐을 때 답답한 느낌
2. 화학적 차단성분 : 옥시벤존, 아보벤존, 에틸메톡시산나메이트 등의 화학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피부에 닿지 않게 합니다.

5. 미백제품

- (1) 미백제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하얗게 될까? 한두번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화이트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부는 4주마다 표피층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턴 오버 주기”가 있어 미백제품을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서서히 원래 피부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즉 일정 기간 사용으로 하얀 피부 상태를 영구히 지키지는 못하므로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 (2) 미백제품에는 기본적으로 수분공급, 멜라닌 억제, 각질제거에 관한 효능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 각질 제거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은 과일이나 식물에서 유래한 산 성분으로 피부자극 테스트를 거쳐 안전한 농도를 사용하지만 민감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에게는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3) 얼굴이 하얗고 쉽게 붉어진다면 비타민C와 비타민B가 항산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 좋습니다. 얼굴이 금세 까맣게 되는 경우라면 알부틴이 주원료인 미백제품이 더 효과적입니다.
- (4)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면 미백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화장품을 오래 쓰면 내성이 생겨서 미백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도 낭설! 가능한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 주름개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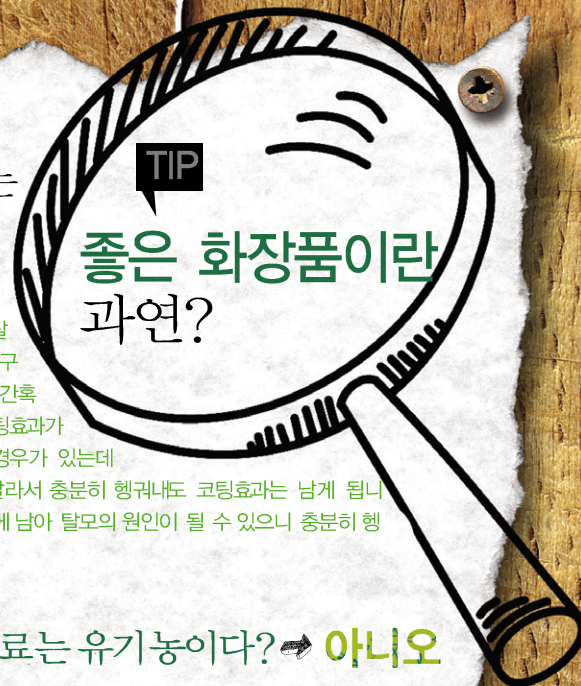
- (1) 주름은 진피층을 구성하는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생깁니다. 주름개선 기능 제품들이 주름을 없애거나 생기지 않게 막아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입니다. 주름개선제는 기능이 약해진 피부 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름을 개선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어 주름의 생성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팬 주름을 없애거나 노화 과정 자체를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 (2) 주름개선을 위해서는 피부노화를 줄이는 것이 좋은데 피부 탄력과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3) 피부의 탄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력크림은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40대 전성 피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오일과 지방산이 많아 20대에서 사용하면 오히려 모공이 넓어지고 탄력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4) 사람의 피부는 사람마다 조성성분은 조금씩 다르지만 물과 기름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냉난방기 사용, 건조한 환경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스킨로션, 수분에센스 등 수분공급을 위한 제품, 로션, 에센스, 모이스처라이징크림 등 유분공급용 제품, 수면팩, 나이트크림, 아이크림 등 보습막 형성을 위한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샴푸는 충분히 헹구는
것이 중요하다.

→ 예

샴푸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물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물에 충분히 헹구면 두피에 거의 남지 않고 헹겨집니다. 간혹 샴푸를 깨끗하게 씻어내어 버리면 코팅효과가 떨어진다는 소문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샴푸의 세정기능과 코팅기능 성분은 달라서 충분히 헹가래도 코팅효과는 남게 됩니다. 샴푸를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두피에 남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충분히 헹가래해야 합니다.



TIP

좋은 화장품이란
과연?

유기농 화장품의 모든 원료는 유기농이다? → 아니오

유기농 제품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기관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동·식물 등에서 유래한 원료이고 전체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 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의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된 화장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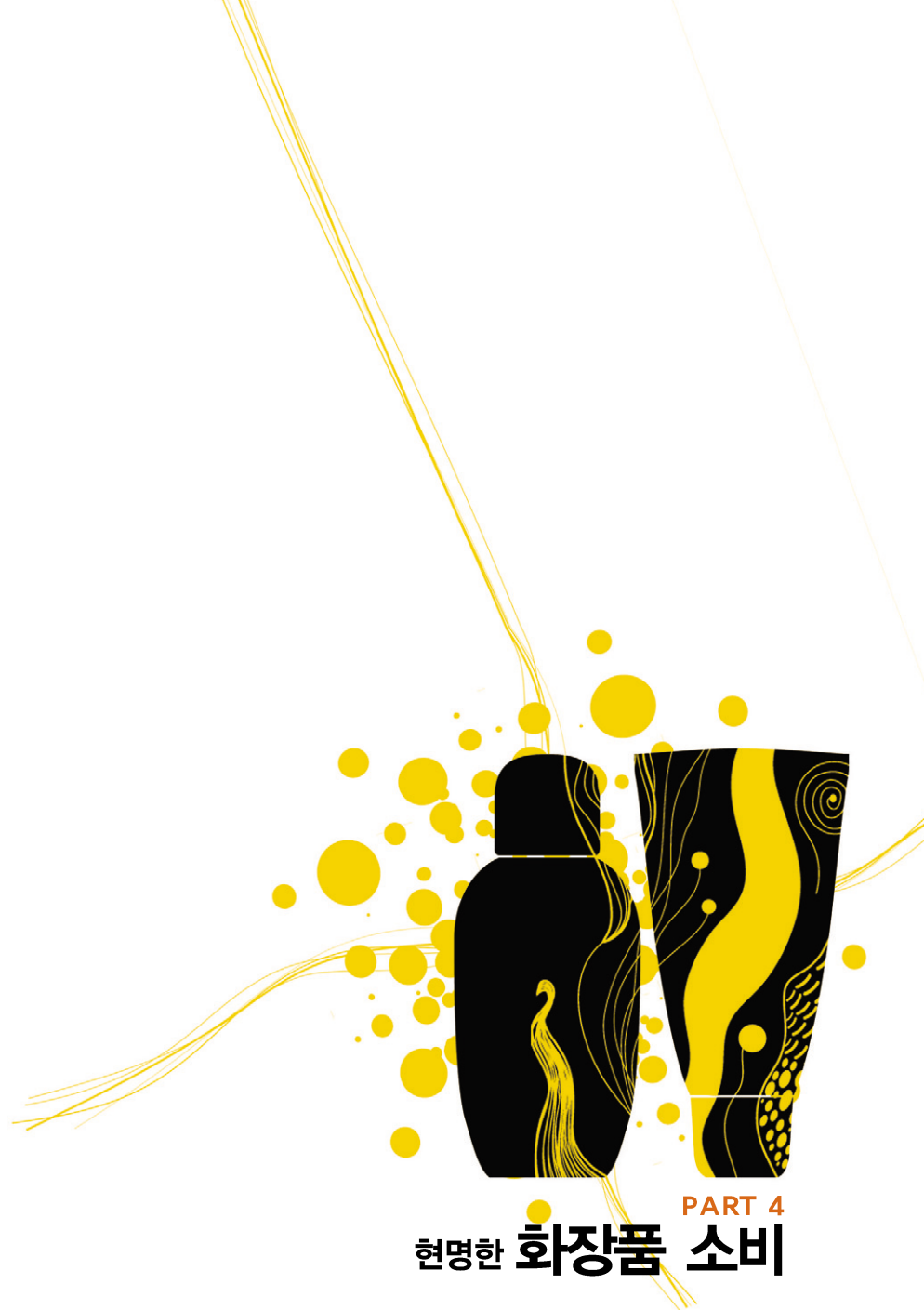
유기농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합성보존제나 향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원료로 제조한 제품이지만 소비자 안전과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17종의 합성원료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이 아무리 좋은 천연유래 성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피부와 맞지 않으면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인공적인 물질의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유기농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며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 화장품과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홈메이드 화장품이 가장 안전하다? → 아니오



보존제 처리를 하지 않은 홈메이드 화장품은 보통 3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냉장 보관하거나 일주일 이내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메이드 화장품 재료들도 잘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불순물이 많은 원료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도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 정확한 제조 방법을 익혀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를 해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 홈메이드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제조방법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PART 4

현명한 **화장품** 소비

1. 올바른 화장품 선택 - 화장품 표시 확인으로부터

- (1) 화장품 포장에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용기, 포장, 첨부서류에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및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량이 15mL 또는 15g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의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표시 면제).
- (2) 또한 지난 2008년 10월 18일부터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전 성분 표시제

- (1) 전 성분 표시제는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정부가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개인적인 체질이나 기호까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전 성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 성분 표시제 안내

- ① 함량이 많은 성분이 앞에 표시됩니다. 함량이 적더라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성분이 있으므로 뒤쪽 성분까지 확인하세요.
- ② 아밀산남알 등 26종의 향료성분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분명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향료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 ③ 50mL(g) 이하 제품은 일부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조업체의 홈페이지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전 성분이 기재된 안내책자를 매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④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여 누구나 읽기 쉽게 해야 합니다.
- ⑤ 금박, 인산염, 과일산 함유제품이나 이들 성분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성분명칭과 함께 함량도 표시해야 합니다.
- ⑥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 (cosmetics.kfda.go.kr)에서 성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광고에 현혹되지 말기

- (1) 화장품은 대표적 이미지 산업으로 매출이 마케팅 및 홍보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광고를 많이 접하는 소비자가 화장품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2) 소비자가 광고에만 의존하여 제품을 선택할 때 오인이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금지표현

- ①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은 자신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자신의 지위나 전문성을 근거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 '피부와 테스트 완료' 등의 표현은 소비자 오인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보아 금지하며, 사용전후 비교 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한 광고는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②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에 대한 표현 금지
아토피, 여드름, 건선, 노인소양증 등이 포함된 표현은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표현 금지
벗기, 다크서를 완화는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며, 피부손상 회복이나 복구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피부노화와 셀룰라이트 감소 등은 사용할 수 없으나 효능효과를 입증한 경우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⑤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⑥ 기타 사용금지 표현
 -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한다.
 - 피부세포의 재생효과가 있다.

4. 올바른 화장품 사용 요령

- ➡ (1) 화장품 사용 시 깨끗한 손은 기본
씻지 않은 손으로 크림을 덜어내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덜어 쓰는 용기의 제품은 깨끗하게 관리된 도구를 이용하여 사용할 만큼만 덜어내어서 바르세요.
- ➡ (2) 화장품에 먼지나 미생물의 유입방지를 위해 사용 후 항상 뚜껑을 바르게 꼭 닫으세요.
개인용이라도 사용 후에는 뚜껑을 닫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습기와 물이 화장품에 섞이면 미생물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므로 제품 내에 습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3) 화장품을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면 감염, 오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판매점의 테스트용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일회용 도구를 사용하세요. 특히 눈화장품은 감염의 위험이 크므로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 (4) 화장에 사용되는 도구는 늘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퍼프나 아이 새도 팁 등의 화장도구는 정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 (5)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상온 보관용으로 제조됩니다. 따라서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6) 사용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반드시 표시기간 내 사용하세요.
개봉한 제품은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반드시 표시기간 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 (7) 만약 사용하던 화장품의 내용물의 색상이나 향취가 변했을 경우,
충분리가 일어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장품에 습기가 차 있거나 물이 섞이면 미생물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5. 샘플화장품 활용법



- 1) 샘플화장품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며, 이러한 샘플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샘플화장품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소량 무료로 제공되고,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건본품이나 비매품의 표시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두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제품 사용에 앞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샘플화장품으로 시험해 볼 때에는 얼굴보다는 가볍적 귀 뒤쪽이나 손·발 등에 발라 내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루정도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상반응시 대처요령

- (1) 화장품 사용 후 알려지나 피부자극이 일어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피부염, 붉어짐, 기존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화상, 피부 탈변색, 물집 등입니다.
- (2) 만약 사용 중지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제품의 문제로 보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상반응 발생 당시에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패취 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화장품에 의한 피부자극은 사용자의 민감성과 관련이 있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알려지 체질이거나 화장품 사용 후 이상 반응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은 화장품의 선택 전에 귀밀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서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 지난 후에도 이상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특히 눈 주위에 사용되는 화장품이나 두발용 세정제품과 같이 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눈에 자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면활성제가 많이 함유된 샴푸와 같은 제품이나, 정발제와 같이 유기용제를 배합한 제품, 산화염모제와 같이 반응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6. 소비자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사례1]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서울의 김OO씨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바르고 난 후 발진과 함께 심한 가려움을 느껴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회사에 환불과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음

대처방법

- ① 화장품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 호소는 20.4% 전국소비자상감센터 2010년 6월~12월 상담건 3473건 중 분석결과를 차지하는 등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②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사례2] 길거리 홍보에 속아 제품 구입

대전에서 대학에 다니는 정OO씨는 학교 앞을 지나다가 화장품 테스트를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봉고차로 가서 제품 테스트를 받았음. 그냥 가려고 하니 보내주지 않고 제품 홍보를 계속하면서 할부로 구입하도록 종용하여 80만원을 할부로 구매하고 집으로 왔으나 사용해도 될 제품인지 잘 모르겠고 불안하여 환불을 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됨

대처방법

- ① 길거리 판매의 경우 구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하여도 미루기만 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료테스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② 통상적으로 계약서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20만원 이상일 경우 일시불 결제보다는 3개월 이상 할부결제하여 할부가매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할부가매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방문 판매상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상의 주소지나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받아 주소지를 알수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례3] 새 제품에서 이물질 발견

서울의 정OO 씨는 매장에서 립글로즈를 구매한 후 사무실에서 개봉하였음. 제품에 잘린 애벌레가 발견되어 업체에 연락함. 업체에서는 성분검사를 위해 제품을 보내라고만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

대처방법

- ① 화장품에 이물질이 함유되는 경우는 생산과정에 혼입되거나 유통과정에서 포장에 일부 파손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동시에 사실을 알리고 검사 등을 위해 제품을 보내라고 할 경우에는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은 후 보내야 합니다.
- ③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화장품에서의 이물질 발생 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례4] 무료이벤트 당첨 전화에 고가제품 구입

서울의 김OO 씨는 피부 마사지 무료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방문한 무료서비스 받은 후 120만 원짜리 화장품을 구매함. 화장품 사용 중 피부트러블이 심해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계약날짜가 많이 경과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대처방법

- ①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적정 사용기간 이내 발생한 경우라면 구입일 상관없이 치료비 및 경비, 일실소득상실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의하여 하며 구입영수증, 현물, 전문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마사지 계약의 경우에는 잔여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비용의 환불과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3 자녀가 수능시험을 본 후 11월 말경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판매사원의 권유에 의해 화장품을 구입하게 됨. 물품대금은 학생이니까 부담없이 할부로 내고 돈이 없을 경우 할부금을 연기해준다고 하여 구입을 함. 박스째 가져가면 부모한테 혼난다며 포장지를 대신 버려준다고 하여 화장품 본품만 가지고 옴. 한 달 후 부모님께서 상기 사실을 알고 판매자에게 구입취소를 요구했으나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함.

대처방법

- ① 우리나라 민법은 만20세 미만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이므로 민법에 의해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③ 화장품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주로 길에서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소비자에게 설문조사에 협조해 달라며 접근,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판매원들은 화장품의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인한 후 나중에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했을 때 제품이 파손됐다는 이유를 들어 해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 ④ 이에 대해 가급적 화장품을 길에서 구입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구입했을 경우엔 즉시 사업자에게 해약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의사통보 하실 수 있습니다.
- ⑤ 해당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생각하다



전국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www.consumer.go.kr

(국번없이) 1372

화 장 품 관 련 정 보 찾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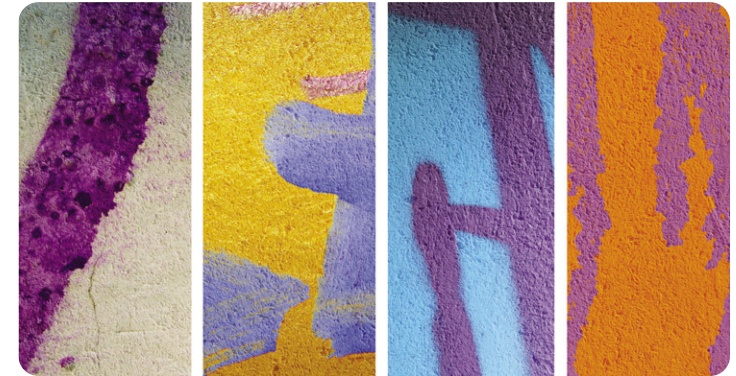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 :
화장품안전성 정보 / 화장품안전홍보 e_book
<http://cosmetics.kfda.go.kr>

화장품전자민원 :
기능성화장품 검색 / 화장품 관련 민원 접수 / 유해사례보고
<http://ezcos.kfda.go.kr>

화장품 성분 사전 :
대한화장품협회 운영 / 화장품성분명 검색 / 화장품바로알기
www.kcia.or.kr/cid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제품군별 소비자정보
www.kca.go.kr
02-3460-3000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녹색소비생활 정보
www.gcn.or.kr
1577-9895



청렴생활 7대 강령

1. 나는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2. 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도 따르지도 않겠습니다.
3. 나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 선물 · 향응 · 편의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4. 나는 지연 · 학연 · 혈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5. 나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과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6. 나는 국가 예산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공용물이나 직무관련 정보는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겠습니다.
7. 나는 내부공익신고를 적극 장려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식약청이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 교육 교재

화장품을 생각하다

펴낸 날 2012년 9월

펴낸 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이광호

펴낸 곳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책임기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

연구개발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문의처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부 화장품연구팀

전 화 043-719-4853, 043-719-4854

팩 스 043-719-4850